

올 전국체전 성공 개최 위해 머리 맞대다

익산시 체전 현장소통·시군 협업 토론회...시, 야구장 개·보수사업비 지원 등 건의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26일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 배산 실내체육관에서 정현을 익산시 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부지사, 전북도 실·국·원장, 과장, 14개 시·군 부단체장, 익산시 체전관련 과장, 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 과장 이상 등 15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현장소통 및 시군 협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도 송하진도지사 등 국, 과장들과 시군부단체장들은 얼마남지 않은 2018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주 개최 도시인 익산에서 현장소통 및 토론회를 갖고 성공적인 체전을 위해 전북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체전을 준비하고자 다짐했으며, 도 체전준비단장의 총괄보고, 익산시 전국체전담당관의 개·폐회식장 등 준비상황보고와 작년 개최지인 충북제천기립팀장의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협업 토론회에서 송하진 지사는 익산시 전국체전 시민리포터즈 이선호단장과 익산시자원봉사총연합회 회장 조흥찬 회장을 초청 민간차원의 체전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익산시는 26일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 배산 실내체육관에서 정현을 익산시 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부지사, 전북도 실·국·원장, 과장, 14개 시·군 부단체장, 익산시 체전관련 과장, 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 과장 이상 등 15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체전 성공개최 위한 현장소통 및 시군 협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천년의 비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유관기관이 한마음으로 함께 성공적인 체전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역사·문화·관광을 널리 알리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내부 토론회를 마친 송하진 지사 일행은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이 개최되는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자리를 옮겨 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현장을 시찰했으며, 특히 장애인 전용관람석 등 장애인시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공사관계자들에게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익산시는 익산(주)에서 전국체전 개·폐회식장 주 진입도로인 지방도 722호선 확장공사 조기완공 개·폐회식장 주변 등 마라톤이 열리는 도심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외부인 일부 처지가 발생한 익산야구장 개·보수 사업비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적인 개최를 위해 주 개최지인 우리 익산시가 앞장서서 체전과 역사·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체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2018. 10. 12.~18.)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2018. 10. 25.~29.)은 주 개최지인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을 갖고 익산시를 포함 14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하여 경기를 치른다. /익산=정왕원기자

국가의 사회생태학적 요인 노인 기대수명 영향 미친다

원광대 장수과학연구소장 김종인 교수 연구팀 발표

60세 이상 노인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민소득이 높고 성차별이 없는 양성평등 사회 환경과 국가 재정 척도를 나타내는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국가가 노년층의 기대수명이 높음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장수과학연구소장 김종인 교수(사진) 연구팀이 2000~2012년 세계보건기구 유엔 세계은행 등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유럽 34개 국가를 조사 분석한 것으로 국제학술지(SCI) '세계화와 건강(Globalization and Health)' 최근호에

발표됐다. 연구결과 국민 1인당 소득이 높고 사회 환경요인으로 성차별지수가 낮으며, 공공정책 수준에서 국가재정 상태 지표인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의 노인 기대수명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국가의 사회생태학적 요인이 노인 기대수명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인 연구소장은 "국민소득이 높으면 의료비 지급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접근성이 용이하며, 남녀평등사회는 성차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어 그만큼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이 높고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의 노인들은 국가재정 상태가 좋은 복지국가로서 의료접근성이 크기 때문에 노인 기대수명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익산=정왕원기자

익산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오는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 학생이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onedclick.moe.go.kr) 또는 복지포털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정왕원기자

또한 기존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이다. 기타 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 교육청 상담센터(239-3346) 및 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왕원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 올해 150여대 보조금 지원... 내달 16일까지 신청·접수

군산시는 매연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150여 대로, 다음달 16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으로,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군산시에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제외되며, 자동차 검사 결과 '정상기능'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 가액표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지원금 상한액이 없고, 2001~2005년 제작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이하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인 경우에는 기준액의 10%를 증액하여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공헌·약자

30%, 1톤 이상 화물차 40%, 일반차량 30%로 지원 비율을 설정해 사회적 공헌·약자, 일반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화물차는 배기량이 큰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원 희망자는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군산시 환경정책과(☎454-338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관곤기자

군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강사 양성교육 과정 실시

군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최근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30명의 신청자와 기존 교육강사 20여명을 대상으로 '제7기 자원봉사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원봉사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보로 교육할 수 있도록 대상, 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에게 자원봉사이론과 사례, 청소년의 이해, 강사스킬 및 강사의 자세 등 맞춤형 특강과 함께 실제현장의 사례를 교육과 접목하여 자원봉사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봉사단체, 기관, 대학교 등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의 참의미와 가치를 지도하는 군산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군산=김관곤기자

군산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합동 업무연찬 가져

군산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3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복지지원관련 담당부서(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족정책소년과)와 읍면동 복지담당자들과의 활발한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요지침개정 사항과 복지담당 부서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복지대상자에게 맞춤 서비스 지원 및 현장 밀착형 복지 추진을 위해 복지담당 부서(4개 과)와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지원에 의견을 모았으며, 주요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장경익 복지관장은 "이러리 좋은 복지정책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 간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다양한 복지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 읍면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관곤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동북경제활성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꾸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